

美国의 石油産業현황

—大韓石油協會 弘報室—

『石油産業의 황금기는 이제 끝났다』. Atlantic Richfield의 Robert O. Anderson 회장은 석유산업의 쇠락을 이렇게 갈파했다. 한 때 경제 및 정치에서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이 대부분의 美国人들이 경외하여 마지 않았던 巨大石油産業이 수요침체와 油價하락, 그리고 증대되는 외국과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全부분에서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탐사는 줄어들고, 정유공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음에 따라 많은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폐업하는 주유소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회사들은 買收전문인들의 압력에 산더미같은 빚을 지고, 소유 자산을 처분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비대해졌고, 관료주의에 젖어 있었으며, 비효율적이었다』고 Phillips Petroleum의 Eastern U. S. 개발소장은 한탄한다.

差益 행기는 株主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체들의 時勢差益을 염두에 둔 투기적 證市개입으로 인해 수십억달러가 株主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證市의 붉은 파국을 맞을 것이다. 실제로 石油價 약세에, 또 적대적기업매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몇몇 石油株는 하락하였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美国의 탐사부진이 결국 석유 부족과 輸入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스톤의 에너지경제학자 Verleger氏は 『株

주에게는 好材이나 국가정책과 소비자를 위해서는 재난이 된다』고 말한다.

축소경영의 움직임이 한편으로는 Mesa Petroleum의 회장인 T. Boone Pickens氏 등의 매수전문인들에 의해서 비롯되었다. 그는 전부터 메이저들이 정신나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비평가들은 石油會社들이 70년대에 油價가 20배 이상 치솟은 당시 이윤을 株主에게 분배하기보다 위험부담이 큰 탐사 또는 경영다각화를 위한 무모한 사업-모빌의 Montgomery Ward인수, 엑슨의 Reliance Electric과 사무시스템사업에서의 고배, 오하이오 스탠다드의 Kennecott 배수구 사업참여-에 자금을 낭비하였다고 성토했고 있다.

Pickens氏에 의해 시도된 적대적 기업매수에 고무되어 Phillips Petroleum과 Unocal은 막대한 借入과 資産의 처분 또는 株主에의 배분을 늘리는 등의 再編에 착수했다. Arco도 기업의 군살을 빼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Pickens氏의 시도보다도 石油産業을 더욱 궁지로 모는 것은 자금문제이다. 石油채취지역이 지구상의 오지로 점점 확대됨에 따라 石油를 발견·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 50년 동안 이래로 油價가 최악의 슬럼프에 빠져, 石油會社들은 잠식당하고 있다.

好轉될 가망은 거의 없어

전문가들은 80년대 말까지 油價가 상승할 가망은 매우 희박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油價상승의 가

망은 美国外에서의 거대한 油田발견, 石油輸出國機構(OPEC)内에서의 심화되는 의견대립과 가격차, 그리고 지속되는 수요침체에 의해 한풀 꺾였다.

현재 美国의 석유수요는 78년의 절정기에 비하여 17%나 낮은 수준이며, 에너지절약과 연료대체 그리고 휘발유다소비 자동차의 점차적인 축출 등으로 계속 억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의 企劃者들은 장래에도 美国의 석유수요증가는 연간 1%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반면에 에너지省에서는 1%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美석유업계의 고민은 팔지 못해 잔뜩 쌓여있는 OPEC產 原油 뿐만 아니라, 외국產 精製品과도 경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美国의 휘발유輸入은 작년엔 26%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품수입과 수요침체에 따라 美石油會社들의 再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1981년 이후 精油工場의 수는 1/3 감소했다. 비교적 최근까지 문을 닫은 정유공장은 대부분 정부의 이미 소멸한 석유할당계획에 따라 탄생한 단순한 爐에 불과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교한 시설을 갖춘 정유공장까지도 타산을 맞추지 못하여 문을 닫고 있다.

石油化學까지 영향 미쳐

美国의 석유회사들이 精油事業에서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石油化學에까지 문제가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New Mideast 화학시설들은 이미 공급과잉의 세계시장을 더욱 약화시키고 석유회사의 化學事業 이익을 상쇄하기 시작하였다.

『공급과잉의 골레에서 벗어나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New York의 증권회사 선임에너지분석가인 Charles T. Maxwell氏는 말한다.

당장은 美国의 자동차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낮은 값으로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어 좋지만, 장기적으로 石油産業의 문제는 심각성을 띠고 있다. 탐사개발이 크게 위축됨으로써 앞으로 10년동안 공급량이 감소될 것이다. 精製와 販賣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된 회사들이 주유소를 계속 폐쇄할 것이며, 이에 안정된 평생직장이라고 믿고 있던 수천명의 종업원들은 매우 당혹할 것이다.

『직장에 들어온지 32년이 지나도록 어느 하루도 이렇게 끝맺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듀퐁 코노코社의 선임개발부장 Hill氏(61세)는 말한다. 회사는 최근에 그의 퇴직을 중용한 바 있으며, 그는 직장을 떠났다.

더구나 油價가 急落한다면 새로 산더미같은 빚을 짊어진 회사들은 이미 추진중인 減量경영을 더욱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석유증권분석가 Bruce Lazier氏는 『석유업계는 지금 자신들을 바꾸니처럼 틀에 짜 맞추려 하고 있다』고 말한다.

資産매각하는 巨大石油社들

석유회사들은 이미 막대한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였으며, 심지어 얼마되지 않는 매장석유와 가스까지 매각하는 회사도 있다. 필립스는 금년 안으로 20억달러 상당의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며, 텍사코는 25억 달러, 세브론은 30억달러, 모빌은 적어도 1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油價急落으로 확정매장유전을 買入하기에는 절호의 기회라고 석유증권분석가 Warren Shimmerlik氏는 말하며, 세계 최대의 엑슨이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립스의 총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80%인데 비하여 엑슨은 15%이다.

그밖에 부채부담이 비교적 적고 견실한 회사는 아모코와 로얄더치 셸그룹이다. 로얄더치는 상당한 매장량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로얄더치는 82년 12월 Cities Service를 인수할 때의 優先株에 상당한 부담을 겪어온 Occidental Petroleum으로부터 풍부한 매장량의 Cano Limon유전을 포함하여 콜롬비아에 있는 자산을 10억달러에 買入하기로 지난 6월초 합의하였다.

빛더미에 올라앉은 메이저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와 가스탐사를 위한 지출을 감축하는 추세로 再編이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 生産量과 收入이 대폭 감소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멕시코灣에서만 메이저들의 굴착장비의 25%가 遊休化되었고, 全美国에 걸쳐 체굴이 절정에 달하였던 81년에 비하여 60%의 장비가 유휴상태에 있다.

필립스는 금년에 美国国内的 탐사·생산비용을 31% 삭감한 선에서 결정지어질 것으로 믿어진다. 아르크는 내년도 자본지출을 22% 감축할 것으로 계

확하고 있으며, 同社 대변인에 의하면 지리적으로도 난감한 알래스카 North Slope의 15억배럴의 유전개발이 低油價로 인하여 벽에 부딪혔다고 한다.

작년에 다른 석유회사를 흡수하는데 모두 300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는 셰브론, 모빌, 텍사코는 금년의 개발비용을 83년에 비하여 40억달러(약25%)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텍사코와 다른 메이저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개발에 재정지원을 할 작은 기업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몇몇 파트너들은 이러한 모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금공여의 급부로 얻는 것이 乾孔뿐일 경우 쓴 입맛만 다시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Pennzoil社의 Liedtke氏는 말한다.

販賣에서의 변화

판매량 또한 감소되고 있다. 대부분의 메이저들은 Sanford C. Bernstein & Co.가 운영자본의 3%에 불과한 이익을 거둔 점에 자극받아 정제업자와 판매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대판매량에서 감축하고 있다.

80년말부터 83년말까지 메이저들이 주유소의 17%를 폐쇄시켜 144,339개소가 남았으나, 그중 1/3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1914년 東部에서 휘발유판매를 개척했던 아르코는 그곳을 포기하고 소유한 4,000개의 주유소중 절반가까이가 있는 본거지로 돌아오고 있다. 셰브론은 유럽의 판매망을 매각하였으며, 모빌은 록키산맥을 떠났다.

『비록 몇몇의 판매망이 放棄되고 있지만 다른 운영권자에 의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판매망도 있으며, 그들은 경쟁자가 적어진 속에서 보다 높은 시장점유를 누리는 경향이 있다』고 뉴저지의 석유분석가 Noel Casey氏는 말한다. 어느 때에는 네개의 주유소가 시장다툼을 벌이던 사거리가 여러 곳 있었으며, 경쟁이 약화될수록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경쟁은 오히려 약해져

東部에서 가격할인으로 경쟁자들을 당황케 한 아르코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깰런당 수센트씩 인상하였다. 특히 피해를 입기 쉬운 대상은 주요도시의 자동차운전자들이라고 가솔린紙의 발행인 Lundberg氏는 말한다. 그 지역에서는 메이저로부터

공급을 받는 독립계 도매상과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메이저들의 휘발유생산감축으로 인하여 가격상승과 심지어 물량부족이 우려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의해 피해를 받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얼마전 문단은 걸프지점에서 근무해온 변호사는 말한다. McKinsey & Co.의 Sawhill理事는 변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하고 現物市場이 활기를 띠고 있음을 언급했다. 非共產世界 석유소비량의 약 40%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이것은 70년대의 5%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그는 메이저들이 계속 정제와 판매에 머무를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그들은, 지난 2년동안 60억달러 상당의 정제와 판매감소를 감안하면, 자신들의 원유를 판매할 판매망이 필요하지 않다.

종업원 계속 감소

石油會社들이 감량경영을 함에 따라 지불하는 인건비도 감소하고 있다. 연례보고에 의하면 83년말 12大 회사의 종업원수는 2년전의 888,000에서 124,000명이 줄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작년 걸프사업장을 비롯하여 셰브론은 12%인 1,000여명을 감축하였으며, 금년안으로 2,000명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85년 1월 1일 기준으로 텍사코의 종업원수는 84년에 비해 26% 감소했다. 필립스, 아르코, 코노코 등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메이저 의존도가 큰 회사에는 예외없이 감원 압력이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 1월 1일 이후 큰 규모의 해양채굴장비 하청업체인 Global Marine은 채굴부진을 이유로 비기술임원 13%를 감원하였다. Parker Drilling도 작년 30%의 임원을 감축하였으며, 종업원 숫자에 대해 계속 줄고 있다고 대변인은 말한다.

코네티컷트州的 어느 주유소업자는 아르코가 동부에서 철수한 관계로 이제 거리로 나가 앓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石油産業이 계속 위축되어 메이저들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수록 全經濟 및 社會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Arlon Tussing 에너지고문은 전망한다. *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 6월 12일자)